

## 韓國 病理學의 개척자



尹日善 博士 (1896 - 1987)

尹日善선생은 1896년 10월 5일 충남 아산군 문포면 신항리에서 출생하였다.

선생은 1923년 日本 京都帝大 의학부를 졸업한후 바로 同校 의학부 병리학교실 副手로 있으면서 의학의 근본문제를 추구하려는 뜻으로 기초의학중 특히 병리학을 전공하였다.

1926년 귀국, 경성제국대 의학부 병리학교실 부수로 임명되었으며, 1928년에는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조교수로 임명되었다. 그후 1930년에 세브란스 醫專으로 옮겨 教頭겸 病理學教室 주임교수로 연구 및 교육에 전념하였다.

해방이 되자 1945년 9월 경성대학 의학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 서울대학교 대학원장(1946), 서울대학교 부총장(1954), 서울대학교 총장(1956)을 지내면서 교육행정의 중책을 맡아 지대한 공적을 남겼다.

한편 1946년 대한병리학회 창립과 더불어 초대회장으로 병리학의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1948년에는 대한의학협회회장, 1958년에는 대한암학회를 창립, 초대회장에 피선되었고, 1954년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으로 임명될과 아울러 학술원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또한 1945년 미군정청 조선교육위원, 의학교육심사회 위원, 1946년 미군정청 보건후생부 고문, 문교부 고등교육위원회 위원, 1950년 무교부 중앙교육위원회 위원, 1953년 외국도서번역심사위원회 위원,

1956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제2대위원, 1961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자연과학분과위원장, 1963년 원자력위원장, 1967년 한국과학기술후원회 이사장, 1968년 한국연구원 이사장, 1971년 삼일문학상심사위원장, 1976년 한국아동재단 이사장, 1981년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 이사장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활약을 하였다.

해외시찰 및 학술교류를 위해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브라질, 필리핀, 홍콩 등 미주지역과 구주지역 및 남미·아세아를 두루 살피고 세계에 걸쳐 국위선양은 물론 건문을 넓혀 후학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다.

선생이 남긴 주옥같은 연구업적은 각종 호르몬이 각 장기 알레르기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암통계, 암조직의 발생 및 이식에 관한 연구 등이며 특히 『고한 적출이 '아나휘락시'를 감퇴시킨다』는 연구보고는 유명하다.

1948년 저명한 미국 암연구지에 「한국인 종양의 통계적 조사연구」란 논문을 게재하여 한국인 종양의 발생상황을 소개하였다.

선생이 발표한 논문은 자저 50편, 지도논문 260편, 그중 박사학위지도논문이 90여편에 이른다.

이렇듯 선생은 우리나라 최초의 병리학교수, 우리나라 현대의학 특히 병리학분야의 개척자일 뿐만 아니라 태두이며, 연구 및 교육을 통한 선생의 공적은 실로 지대한 것이다.

평소 선생은 문학, 미술, 음악등에도 다양한 취미를 가졌으며, 조예도 깊어 아마추어 경지를 넘을 정도였다.

한편 선생의 기억력은 젊은 사람들이 당하지 못할 정도로 비상하였으며 후학들은 늘 감탄하였다.

특히 선생의 교육이념은 지식인 보다는 인격인 양성이란데 두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다소의 재능보다는 사람됨을 중시하여 『인격이 결여된 자는 학문을 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하였다.

선생은 1987년 6월 향년 91세를 일기로 타계하실 때까지 학문연구와 교육에 일념으로 정진, 한국병리학에 커다란 자취를 남기었다

李 尚 國

(서울대 醫大교수·病理學)